

은 새로결정해서 전국에 낙농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행방안이 진흥회에서 나오기 바란다.

특히 이과정에서는 낙농진흥법 개정반대 입장에서 우려했던 원유에 자유로운 판매권 박탈에는 원유에 안정적인 판매보장과 수익보장으로 진흥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낙농가에 전가되는 운영상에 필요한 진흥회의 모든 비용은 어느 한쪽이 아닌 생산자 단체, 유업체 단체,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서 좌우 어느쪽도 치우치지 말고 운영하게 하고 특히 원유검사 제도가 공정성을 유지하게하여 검사제도에 시비가 없어야 할 것이며 원유수급에 불안정한 문제가 있으면 정부에서는 방관만 할 것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원유의 수급 균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야만 한다.

원유에 계약생산제 도입시 신규농가 신규유가공업체 참여방법이 제도적으로 막는 처사에는 우유소비가 매년 증가되는 점과 폐업목장의 생산할당량을 자유로히 농가간에 승계하게하고 소비증가량 만큼 신규유가공업체 참여를 허가해서 유업체의 무질서한 난립으로 작년 10월에 있던 유업체간의 감정싸움으로 이나라의 낙농업에 먹칠을 하는사태로 먼저 소비자에게 우유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만 된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진흥회설립과 운영상에 모든 문제는 난제에 난제이지만 우리 낙농인이 꼭 넘어야할 과제임은 틀림없지 않은가. 늦었다고 원망하지 말고 법개정에 반대입장에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되게 하고 법개정을 반대하던 일부지역 낙농가도 모두함께 참여해서

이나라 낙농사에 큰 전환점이 되도록 모두 참고 인내하며 진흥회 설립과 운영에 함께 참여하자.

지금 우리 낙농업이 얼마나 어려운가. 낙농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고 까다롭기만해진 원유의 위생등급검사제도며 바닥을 모르고 하락하는 송아지와 도태우 가격, 열악한 조사료 사정, 금년 여름에는 벗짚도 Kg에 300원 했으며 치솟기만하는 배합사료 가격인상에 야속할 정도로 조여만 드러오는 환경부처의 강화된 축산분뇨처리법률 그러나 우리는 이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며 열심히 낙농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지 않은가.

이제 낙농진흥회의 새로운 활동으로 희망찬 내일의 낙농산업이 이땅에서 꽃피우기 바라며 진흥회 설립과 활동에 큰 기대를 하는바 크다. ☺



김 태 호
본회이사

농업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상대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특히 낙농업은 젖소라는 특이한 동물과 그 먹이를 생산하기 위하여 식물(초지및 사료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그야말로 종합산업인 동시에 생명 산업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고 힘이든다.

지금까지는 힘을 들이지만 다른 농업에 비해 소득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소값이 좋았던 80년대 초와 90년대 초에는 농촌에 사는 사람이면 낙농업을 하려했고 선망했다. 소를 좋아하거나 낙농업 긍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낙농업을 시작하였다. 심지어 목장에는 주인은 없고 목부를 두어 운영하고 주인은 한달에 1~2번 손님처럼 와보는 목장도 많았다.

요즘은 그런 목장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주인이 직접 경영하던 목장들도 사양관리 개선이나 종축 개량 등에 투자와 노력을 기울리 하

우리의 낙농현실과 앞으로의 방향

국제적 경쟁에서 선진국 낙농가와 대등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꼭지점으로 궤도를 수정, 그들보다 몇배의 투자
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영원히 뒤질 수 밖에 없다.
우리 낙농가도 낙농업이야말로 환경산업이며 식량을 생산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배가의 노력으로 새로운 21세기의
국제 경쟁력에서 앞설수 있도록 노력하자.



특집

고 도태우와 솟송이지 값에 의존 목장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수년전부터 종축을 개량하고 사양 관리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목장은 우수 생산이 연평균 두당 1만 kg를 웃도는 목장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업 규모 (성우 40~50두)에 두당 연평균 8천 kg이상이면 낙농 선진국 수준이다.

이 정도의 전업농과 산유량이면 시유료 경쟁력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한다. 지금과 같은 전국 두당 연평균 5,700kg 생산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목장주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가능한 것들이다. 목장주가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가능한 분야가 조사료(초지, 사료작물) 생산이다.

몇몇 기업목장을 제외한 많은 목장들이 조사료 포의 부족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많은 수의 목장들이 우사와 운동장만 있고 조사료포가 전혀 없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경지 면적이 적은 국가적 현실

에 목장이 밀집한 경기 수도권 지역은 높은 토지 가격으로 확보가 힘들다. 이 분야는 목장주도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하지만 정부에서 식량산업 차원에서 쌀전업농처럼 사료 작물포나 초지 확보에 자금과 국유림 임대등 전폭적인 지원과 행정 절차 간소화가 절실하다.

세계적으로 식량부족 현상이 일기 시작하고 무기화 되어가는 현실에 낙농업이야말로 제일 좋은 식량 확보 산업이다. 젖소는 사람이 직접 이용 못하는 풀과 농업부산물(조사료)를 먹고 영양분이 풍부한 우유와 고기를 우리에게 선사하는 신비의 동물이다. 환경도 보존하고 식량도 생산하는 일석이조의 방법으로 이 강산을 옥토로 만들수 있는 것도 낙농산업이다. 소에서 나오는 분뇨를 사료 작물포에 환원하면 그야말로 자연적인 순환의 법칙이며 국토를 옥토로 만들수 있다.

전업낙농업 규모(성우 40~50두)의 두수에 조사료 포만 확보되고 종축 개량과 과학적인 사양관리를 하면 농후 사료를 수입하여 먹인다 해도 국내 시유면에서는 경쟁

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많은 수의 목장주들이 몇년만 더 하고 목장을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목장을 경영하면 그 목장은 망가질 수 밖에 없고 생산성과 소득이 떨어질 것이다. 몇년만 더하고 그만둘 직업이라면 지금 당장 다른 직업으로 바꾸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인 것이다. 평생직업 또는 그이상 대를 이어 낙농업을 한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공부하고 실천 연구하여 어려운 낙농업의 현실에 도전하자.

국제적 경쟁에서 선진국 낙농가와 대등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꼭지점으로 제도를 수정, 그들보다 몇배의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영원히 뒤질 수 밖에 없다.

선진국 낙농가와 같은 노력으로 계속 그들의 뒤를 따라 갈 뿐이다. 우리 낙농가도 낙농업이야말로 환경산업이며 식량을 생산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배가의 노력으로 새로운 21세기의 국제 경쟁력에서 앞설수 있도록 노력하자. ㉞



신 민 수
전남도지회장

우리나라 낙농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자

낙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어떻게 제정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낙농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낙농가의 생존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우리나라 낙농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낙농 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낙농가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낙농가의 권익이 확실히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